

낮선 나라 루마니아, 그리고 낮선 여행의 기회

- welcome to cluj-Napoca!

루마니아. 글쎄, 많이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는 건 전혀 없는... 나에겐 그런 나라였다. 대충 위치가 동유럽이라는 것 정도. 그리고 막연히 동유럽은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는 편견이 나를 헛갈리게 했다.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아는 것 투성이었지만) 그런 내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혹은 행운). 루마니아 여행이었다.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기의 제안이었다. “우리 한 번 루마니아 가보지 않을래?” 아주 잠깐 설렘했지만 여행경비는 둘째 치고 혼자 떠나는 여행 자체가 더는 혼자가 아닌 나에겐 큰 도전이었다. 그런 시간을 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두세 살 밖에 안 먹은 연년생 남매에겐 아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기들과의 유럽여행이라니! 그리고 이번이 아니었다면 평생 가볼 생각도 안 했을 루마니아?! 내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아내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의 일탈을 허락해주었다. 내 빈 자리를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겠지만 누구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내 결정을 응원해주었다. 그런 지원에 힘입어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음에 아내 혼자만의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시원한 출발, 그리고 도착한 루마니아

여행의 시작은 “여행준비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여행준비의 기쁨은 누리기가 어려웠다. 출국 당일 날마져 우리에게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마친 뒤, 회사 앞 엠블호텔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7시 45분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이었던 공항 가는 버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서 항상 답답했는데 우리가 떠나는 당일 서울 공기는 너무나 깨끗했다.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는 게 정말 얼마 만이었던가. 시야가 탁 트여 저 멀리 불빛까지 아스라이 보이고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광경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될 것만 같았다.

‘인천 - 루마니아’ 직항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최다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터키항공을 이용했고, 인천에서 밤 10시 35분에 출발해 현지시각으로 새벽 5시 50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환승을 한 다음 아침 무렵, 루마니아의 클루지 나포카 공항에 도착했다. 루마니아의 첫인상. 화가 밀레의 만종에서 본 유럽의 고즈넉한 농업국가 느낌이었다.

루마니아의 수도는 ‘부쿠레슈티’이다. 그리고 내가 간 곳은 클루지 나포카(Cluj Napoca). 간단하게 클루지라고도 부른다. 자타공인 제2의



센트럴파크의 울창한 숲 사이로 하트모양이 되어버린 구름

도시이다. 한창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며 대학교가 많아 학생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다. 젊고 유능한 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도시 마케팅을 하는 중이었다. 우리도 그 연장 선상에서 루마니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입국심사 후 호텔로 이동해 오전 내내 야간비행의 여독을 풀 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를 탐방하기 시작했다.

하나. 즐기다, 클루지 데이!

대학에서 관광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리우스라는 가이드가 4일 내내 우리와 동행했다. 마침 클루지는 도시 축제 기간이었다. 이 도시에서는 매월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 이번 축제는 클루지&루마니아 100주년 기념 “Zilele Clujului 2018” (번역하면 “클루지 데이”) 축제였다. 호텔을 나와 같이 걷기 시작했다. 주변 대학가와 나라의 역사 등의 가벼운 설명을 들으며 클루지 나포카 센트럴 파크로 갔다. 공원은 클루지에서 제일 큰 공원이었다. 마침 축제 기간이다 보니 여기저기에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뱀을 보고, 난생처음으로 목에 둘러보았으며 거미와

벌, 전갈 등도 볼 수 있었다. 오솔길에 전시된 완전 올드카를 구경하기도 했다.

공원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껏 즐겼다. 말도 타보고, 집라인도 타고, 호수에서 동기와 함께 카누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다니면서 가이드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도시의 유명인인 듯했다. 공원 안에 작은 분수와 아담한 홀이 있는데 그곳에서 야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유로운 유럽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호숫가 옆 식당에서 베이컨, 콘스프로 만들어진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공원을 걸었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날씨가, 햇살이 너무 좋다 보니 마음도 들뜨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 공원을 나와 시내를 걸었다. 예쁜 교회, 웅장한 교회를 지나 도착한 광장. 광장은 넓고, 진짜 유럽에 온 느낌을 온몸으로 전해주었다. 커다란 축제답게 많은 관객을 모은 채로 연주회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아이스크림, 맥주 등의 간식거리를 팔고 있었다. 우리는 더운 햇빛 아래서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먹으며 살짝 힐링을 한 다음 광장 옆에서 하는 퍼레이드 구경을 하러 갔다. 퍼레이드를 보며 알게 된 사실! 클루지 나포카는 우리나라의 수원과 국제자매 도시라고 한다. 퍼레이드 리허설을 보고 있을 때 수원시장 및 그 일행이 몰려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도시에 한국인, 아니 아시아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다 보니 그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 반가웠나 보다.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채로 1시간여 행진 퍼레이드가 열렸다. 악단의 신들린 연주와 함께 처음엔 각종 신기한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앞장을 섰고 아이들, 운동선수들, 각 나라를 대표 혹은 상





클루지 축제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과거시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루마니아 여성들의 모습

징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 과거 시대 코스프레를 (특히 군대들)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 행렬로 지나다녔다. 우리는 영상과 사진을 열심히 찍으며 그 열기를 즐겼다. 태양이 내리쬐는 열기도 어마무시 해서 얼굴이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한낮의 태양 아래서 너무 지친 다리를 이끌고 커피 한 잔을 했다. 이 틈에 아내에게 안부를 전했다. 한 번 더 고맙다고 말하면서.

플리 마켓에 둘러보았다. 나름대로 예쁜 공예품이라고 만들었을 텐데 솔직히 살만한 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내게 조악한 장식품은 사치였다. 이어서 고대 사람들을 재현한 거리를 걸었는데 그게 재밌었다. 직접 옛날 무기를 듣거나 갑옷을 입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오래된 골동품들을 구경할 수도 있었다. 이런 행사장이 있을 수 있었던 건 클루지 나포카를 포함한 트란실바니아 지방 자체의 역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지방은 산맥으로 일부가 둘러싸여 있으면서 넓은 평야를 갖고 있다 보니 항상 주변국들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다. 1918년에 지금의 루마니아 땅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로마제국, 오스만제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통치하던 땅이었다. 이 때문에 훈족,



미드나잇 스낵파티 현장. 해가 길어서 밤이지만 밤 같지가 않다

게르만족, 헝가리인 등 다양한 문화가 그들의 역사 속에 녹아있었다.

저녁은 국제 음식 축제에 가서 먹었다. 노점형태로 주욱 늘어서 있는 가게들 안에서 다양한 나라의 요리가 김을 내며 자태를 뽐냈다. 우리는 소시지, 햄버거, 돼지갈비와 맥주를 먹었다. 맛있었다. 다 함께 노룩 ~ (Noroc, 루마니아 어로 건배)을 외치며 잔을 부딪쳤다. 살짝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미드나잇 스낵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미러 스트리트’로 이동했다. 길을 따라 마주 보는 건물이 똑같이 지어진 이름이라고 했다. 도착하니 탁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가 사 온, 싸 온, 혹은 주최 측이 나누어 주는 음식을 먹었다.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마주 앉았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간간히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주기도 하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축제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벤트 같았다. 그리고 낮엔 정말 더웠는데 밤은 정말 추웠다. 일교차가 심했다. 혼자 반팔 차림이라 많이 추웠지만 불꽃놀이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러나 야외 오페라 공연이 앙코르 공연으로 길어지며 우린 결국 불꽃놀이를 보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땀~ 땀~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내 기분도 땀땀 터져버렸다. 갑작스럽게 올해는 꼭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겠다는 다짐을 해버렸다. 동기 중 한 명의 방에서는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보였다고 했다. 부러웠다.

둘.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다음날, 조식을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사실 일찍 일어났다고보다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루마니아는 해가 상당히 길었다. 일몰 시간은 밤 10시였고 일출

시간은 새벽 5시였다. 밤이 밤 같지 않고, 아침은 낮과 같았다. 이 또한 신선한 경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건 좋았다.

밴을 타고 트란실바니아 민속 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역시 햇살이 너무 좋았다. 1922년에 로물루스 보아라는 대학교수가 만든 야외 역사박물관인데 루마니아의 17~20세기에 해당하는 과거 주거시설을 재현해 놓았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었다.

과거엔 공장이 없었으니 공산품을 전부 만들어 써야 했다. 집을 포함해 집 안의 모든 것들을 수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웠다. 특별한 점은 쇼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데 쇼룸은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방이었다. 모든 집에 있고 그걸 통해 딸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집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 물건들을 혼수로 챙겨갔다고 한다. 요즘 가치와는 다르지만 그 당시의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또 교회가 지붕을 비롯해 완전하게 나무로만 지어져 있었다. 과거에 헝가리인들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돌 등의 재료를 건물 짓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고 했다.

루마니아 양식으로 지어진 집을 구경했다. 나무를 위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가 집을 짓는 재료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짚으로 지붕을 만드는데 젓지도 않고 70년을 버틴다고 했다. 또, 물레방아를 이용한 17세기의 세탁기, 공예가의 집에 전시된 각종 공예품, 과일을 키우던 농부의 집, 옛날 술 창고, 옛날식 경운기와 맷돌도 보았다. 주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독일식, 헝가리식, 루마니아식의 각기 다른 집들이 있었다. 각각의 양식마다 특징이 명확했으며 헝가리식이 요즘의 모더니즘과 닮아있는 것 같아 세련되어 보였다.

박물관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었다. 하늘은 오늘도 너무 맑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강한 공

기를 매일 마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밴을 타고 클루지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래 봤자 10분이면 도착했다. 대부분 평지이다 보니 작은 동산에서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성곽에 걸터앉아 내려다보는데 도시 경관이 너무너무 예쁘다. 아직 현대식 높은 건물들로 치장되지 않은, 비슷비슷한 지붕의 아담한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유럽 그 풍경 자체가 참 예뻐다. 클루지가 더 발전하기 전에 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벌써 들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는데 색감이 이렇게 예뻐 수가 없다. 색보정이 필요 없는 풍경이었다. 도시를 바라보고 양팔을 크게 벌린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내가 도시를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제 갔던 광장에 다시 섰다. 오늘도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포크 뮤직. 딱 봐도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감상하고 계셨다. 유럽 어르신들 감성인 모양. 젊음을 느끼고 싶어 근처 궁전에서 진행 중이던 맥주 크래프트 페스티벌에 갔다. 궁전은 예전엔 궁전이었지만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 안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맥주 축제가 열렸다. 군데군데에서 형형색색의 맛의 맥주를 팔고 있었고 DJ 앞에 흠뻑 땀 흘려 선 사람들이 리듬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몸을 툭툭하며 흐름을 타봤다. 역시 가슴을 울리는 사운드는 절로 흥이 난다. 맥주 축제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축제라고 했다. 광장보다 분위기가 훨씬 젊고 좋았다. 젊은 분위기 뽐뽐. 오길 잘한 것 같았다.

셋. 주변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셋째 날. 클루지 근교에 가보기로 한 날이라 아침 일찍 밴을 타고 출발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빵과 바나나를 챙겨, 가는 차에서 먹었



루마니아 전통 쇼룸



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던 궁전 안 마당



아름다운 클루지를 안아보고 싶은 나의 마음

다. 시비우라는 도시를 향해 가는데 신기하게도 고속도로가 없었다. 이 근방에는 고속도로가 따로 없다고 했다.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내 내 왕복 2차선 도로 위주로 달렸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차가 막히지 않는 것이 특징. 신기했다. 창밖으로 보는 풍경은 역시나 아름다웠다.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언덕을 한참 동안 올랐다. 언덕을 오르는 길조차 예쁘고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가 무척 인상 깊었다. 동기들과 차 안에서 이곳 자연의 아름다움, B&O의 블루투스 이어폰, 출장이야기, 결혼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 창밖의 배경이 익숙해질 즈음 다 같이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눈을 붙였다. 사실 엄청 잠이 오지는 않았지만 눈의 피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눈을 붙여 보았다.

11시 20분에 '시비우(Sibiu)'에 도착했다. 유럽을 올 때마다 느끼는 큰 특징이 옛날에 지은 집이 오래도록 보존되어 있다는 점인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집 지붕마다 감시하는 것 마냥 작은 창이 나 있었는데 옛날에 물건 거래를 위해 카펫 따위를 지붕에 저장하느라 만든 환풍구라고 했다. 겉보기에 좀 을씨년스러웠다. 마치 스파이를 감시하는 듯 보였다.

어느 정도 걸었더니 엄청 커다란 광장이 나왔다. 광장을 빙 둘러선 건물들이 저마다의 역사를 뽐냈다. 거짓말쟁이들의 다리를 건너 오래된 작은 광장에 갔다. 고딕스타일로 15세기에 지어진 커다란 교회 옆에 섰다. 다운타운과 업타운의 통로인 계단을 보고 교회 맞은편에 4개 국어를 가르치는 명문학교를 볼 수 있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입학도 입학이지만 들어가서 배울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나도 2개

국어라도 잘하고 싶은데...

금강산도 식후경. 젊은 유럽 요리사 대회에서 우승한 셰프가 일한다는 joben 식당에 들어갔다. 다른 것도 맛있었지만 우승 때 만들었다는 양고기 요리가 일품이었다. 양고기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더불어 나온 지역 맥주인 cuic 역시 상큼한 맛이 났다. 식사 후에 가이드와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가이드 여행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이번 여행에서 많이 바뀌게 되었다.

다시 차를 타고 시비우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시기쇼아라(Sighisoara)라는 도시로 이동했다. 가는 동안 마리오스가 시비우의 큰 회사들, 지

시비우 시내의 넓은 광장





시기쇼아라의 시계탑,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역 경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공장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전해왔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 지멘스 등의 큰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없고 도시의 리모델링 정책 때문에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자주 있다고도 했다.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옛날 양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타일

재료 등을 구하다 보면 리모델링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어렵다고 한다. 도시 미관 유지에는 정말 탁월한 정책인데, 경제성 때문에 산업화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기쇼아라에 도착해 언덕을 올라 시타델에 다다랐다. 올라오니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는 풍경이 좋다. 굽이굽이 골목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끼리 연신 수다를 떨었고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뭘 해도 그냥 재밌었다.

근교 도시들을 둘러보고 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다. 클루지 근처의 높은 곳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클루지 야경이 일품이었다. 루마니아에 와서, 클루지에 와서 너무 좋은 것만 눈에 담고 있었다. 여기 클루지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누리며 맛있는 음식과 액티비티, 축제,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참 괜찮은 곳인 것 같다.

넷. 끝까지 매력적이었던 클루지

마지막 날이 밝았다. 마지막으로 먹는 카푸치노와 나의 조식.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새삼 활기차 보였다. 에너지를 받아 나도 오늘 더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여행에서 또 하나 신선했던 건 사실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들인데도 차를 타고 가며 수다를 떨다 보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었다. 이런 게 또 여행의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

10시쯤 소금광산(SALINA TURDA)에 도착했다. 주변에 사해 같은 소금 호수가 있어 여름마다 사람들이 편하게 수영하러 놀러 온다고 한다. 로베르토라는 담당자를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광산 안으로 들어갔다.

시타델에서 내려다본 시기쇼아라 마을 풍경



시기쇼아라 언덕길





SALINA TURDA 소금광산의 광활한 내부. 신비한 공간이다.

광산 안쪽은 단단한 소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동굴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전을 통해 소금을 얻지만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학명을 갖고 있는 소금은 지질운동을 통해 이런 광산의 형태로 묻혀 있기도 하다.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이곳은 실제로 소금을 캐내던 곳이었다. 옛날엔 마차로 소금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통로가 무척 넓었고 군데군데 신기한 모양으로 소금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원리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햇불이 쬔여있던 자리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금입자가 몸에 좋다고 해서 헝가리 왕자가 자주 드나들기도 했다고 한다. 나도 크게 한 번 숨을 들여 마셔보았다. 그냥 시원했다.



소금 마차에 실린 소금 암석들



무늬도 형상도 기묘한 소금광산 안에서의 단체사진

지하광산이다 보니 꽤 쌀쌀했다. 좀 더 내려가니 가로세로 약 60m, 깊이는 120m인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그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볼링, 포켓볼, 골프, 족구, 탁구를 할 수 있는 공간, 관람차, 미니 콘서트장까지. 여기서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한단다. 사실 이곳이 처음 개장했을 땐 규모만 컸지 관람하기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하루에 단 2명만 방문하기도 했었다는데 700만 유로를 지원받아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하고 난 지금은 1년에 80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한다. 드론 대회도 개최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장 밑 소금호수까지 내려가 보았다.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끼리 사진을 찍었다. 갑자기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락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됐는데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취한다고 했다. 재난방송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에 항상 관심이 간다.



와이너리로 가는 쪽 뻗은 도로

광산에서 나와 주변에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간혹 외국에 나오면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루마니아에 와서 단 한 번도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곳의 음식은 맛있었고 그 맛에 비해 가격은 한없이 저렴했다.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었다. 이번에도 굴리시 수프, 연어 휠렛, 소고기 스테이크와 양고기, 염소고기를 비롯한 각종 고기를 시켜 배불리 먹었다. 먹으면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날 먹은 시비우 셰프의 양고기가 으뜸이었다.

점심 식사 후에 옆에 있는 와이너리에 걸어갔다. 파란색 하늘, 푸른 들판.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현대식 와이너리는 처음 방문해보았다. 오크통에서 와인을 숙성하지 않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며 와인을 숙성시키고 있었다. 여러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을 시음했더니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유럽, 그리고 와인이라니. 나 혼자 유럽감정에 흠뻑 빠져버렸다. 와인 몇 병을 사고, 그 옆의 마구간에도 들렀다가 클루지로 돌아갔다.



언덕에서 클루지 시내를 배경으로 한 우정 사진

시청에 들러 공무원들과 간단한 미팅을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클루지에 대해 소개하고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을 경청했다. 젊고 곳곳한 아름다움이 깃든 이 도시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다만 저마다 갖지 못한 장점을 갖기 위해 애를 쓰듯이 이곳은 산업화에 대한 욕심이 있어 보였다. 제발 지금의 아름다움을 크게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잠깐의 여유를 즐긴 뒤,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벌칙이긴 했지만 출발 전에 시를 지어 즐거웠던 여행의 황홀함을 곱씹었다. 마지막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휴대품 신고서 대신 입국 신고서를 받은 게 옥에 티(?). 내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보였나 보다.

클루지 나포카에서의 4일, 총 6일간의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돌아오자마자 미세먼지 속에 콜록거려야 했고, 도로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까지 당하는 바람에 귀국 당일부터 다사다난했지만 여행의 기억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남았다. 가족과의 여행과는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동기들과의 여행. 그리고 그 여행지가 루마니아라서, 클루지 나포카여서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갈 것이다. 그만큼 클루지는 예뻐고, 아름다웠고, 신선했다. 힐링 여행지로 강력하게 추천해본다.

때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흐름에 몸을 맡길 때가 있다. 어떤 흐름이든 즐겁게, 슬기롭게 탈 수 있는 나이길.

낯선 나라 루마니아, 그리고 낯선 여행의 기회